

# “성적 호기심 부추기는 흥밋거리 책이 더 많다”

성풍속 다룬 책들에 문제는 없는가...  
우리 상황에 걸맞는 학문적 논의 요구돼

김종대 | 국립민속박물관 전시운영과장

성에 대한 담론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동서양의 철학에서 성신앙, 구비문학, 춘화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걸쳐 성적 관심을 조명하고 있다.

그러나 성 관련 도서들이 성문화를 올바르게 전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점은 책 제목만 봐도 쉽게 알 수 있는데, 섹스나 성이란 단어가 무차별적으로 쓰이는가 하면, 에로스라는 단어도 심심찮게 붙어 있는 실정이다.

최근 한국의 출판계가 주목하고 있는 주제로 성(性)을 들 수 있다. 외국의 사례뿐만 아니라, 한국적인 성풍속까지도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한번쯤은 생각하고 넘어가야 할 대목임이 분명하다.

성에 대한 관심과 의문은 인간의 원초적인 문제다. 따라서 고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아왔다. 성의 본질이 생산이나, 아니면 쾌락적인 속성을 띠고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 대개의 사람들은 후자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철학적인 의미에서는 오히려 종족번식쪽에 비중을 두고 논의해왔다.

## 성에 대한 관심은 인간의 원초적인 문제

성에 대한 관심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인도나 중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그런 흔적들은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중국의 《소녀경》과 같이 성행위를 통해 득도의 경지를 추구하고자 했던 사정은 성이 생물적인 생산기능을 갖고 있지 않음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이런 점은 서양의 경우에도 큰 차이가 없다. 프로이트 이후 성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면서 단순한 신체적인 성의 의미뿐만 아니라, 성이 사회적 구조 속에서 어떤 위치에 놓여 있으며, 어떤 속성을 지니고 있는지 확인하려는 작업이 전개되고 있다. 이와 같은 작업은 성을 철학적인 대상으로 접근하고 있는 일련의 논의로까지 상승된 실정이다.

그렇다면 외국의 사례와 달리 한국의 성풍속에 대한 출판현황은 어떠한가. 일반적으로는 전승돼온 상황이나 문헌기록의 내용을 서술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서구처럼 철학적인 단계까지 상승하지 못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성은 'sex'와 'gender'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섹스보다는 젠더에 대한 허용이 앞섰다. 즉 문화적 미풍양속을 헤치는 대상으로 섹스를 봤기 때문이다. 섹스는 최근 들어와 학문적으로 활발하게 논의되기 시작했으며, 미셸 푸코의 《성의 역사》(이규현 외, 나남출판)가 출간된 것은 이런 경향을 잘 보여준다. 반대로 현실적인 성의 표현이 억압돼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은 장정일의 《내게 거짓말을 해봐》(김영사)나 이현세의 만화작품 《천국의 신화》(해냄미디어)의 사례로도 잘 알 수 있다.

## 성에 대한 철학적 담론

그렇다면 성이라는 주제를 거론하는 방식을 살펴보는 것도 흥미로운 일이다. 이것은 크게 네가지 측면에서 나눠볼 수 있다.

첫째는 도를 깨우치기 위한 수련의 형태로 성을 이해하려는 관점이다. 중국의 《소녀경》, 인도의 《카마수트라》와 《탄트라》 등이 좋은 사례다. 《소녀경》은 책이름 때문인지 중학교 여학생을 위한 추천도서로 올라 사회적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이들 책에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하는 성교행위가 자세히 서술돼 흥미를 자아내지만, 실제로 이것은 현실적인 쾌락만족을 뜻하기보다는 금욕 수련을 통한 진리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둘째는 성을 철학적 담론으로 풀어낸 것이다. 이런 방식은 주로 서구에서 발전했으며, 현재도 사회학자와 인류학자에 의해 논의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푸코의 《성의 역사》를 들 수 있지만, 고대 그리스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지속적인 관심대상으로



자리잡아 왔다.

성의 철학적 담론은 크게 두가지 방향으로 전개돼 왔다. 첫번째는 성을 둘러싼 사회적·정치적인 현상을 언급하는 것이며, 두번째는 남녀간의 성관계가 지향하는 육체적·쾌락적인 관심사를 둘러싼 논의다. 이런 논의는 시대적인 흐름을 통해서 어떤 인식의 변화가 이뤄지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예를 들어 기독교 문화를 수용하고 있던 구세대에게는 결혼을 통한 남녀간의 결합이 평생 지속되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 현재는 사회적인 변화에 따라 이혼율이 증가하고 재혼의 경우에는 종족번식이라는 의미보다 사랑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는 식이다. 이것이 사회적으로, 특히 푸코와 같이 권력적 속성과는 어떻게 연관되는지 논의할 경우 그것은 교양서의 수준을 넘어 쉽지 않은 철학적 사고를 요구하게 된다. 최근에는 서양에서 논의됐던 철학적 담론을 압축 요약해서 《성과 사랑, 그리고 욕망에 관한 철학적 성찰》(장영란 외, 서광사)이라는 단행본이 간행되기도 했다.

이외에도 섹스의 육체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정신적 환희를 강조한 《섹스의 영혼》(토마스 무어, 정명진, 생각의나무), 성을 사회학적으로 해명하기 위해 생물학적 섹스와 젠더의 비교 및 인식변화 등을 논의하고 있는 《섹스의 역사》(토머스 윌터 라커, 이현정, 황금가지), 마르크스와 프로이트를 결합시켜 영 진영으로부터 배척받은 라이히의 《성혁명》(윤수중, 새길), 여성의 관점에서 유럽의 여성사를 논의한 《이브의 역사》(카리 우트리오, 안미현, 자작) 등 많은 이론서들이 간행됐다. 어느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책제목만 보고 호기심으로 책을 샀다가는 큰 낭패를 볼만한 책들이다.

### 정신적 눈요기 충족시키는 흥밋거리 책들

셋째는 성을 통속적인 흥밋거리로 논의하는 것이다. 《세계풍속사》(파울 프리샤우어, 이윤기, 까치글방)와 같이 '풍속사'나 '성문화'라는 제목으로 발간된 책들의 경우 섹스의 풍속을 담고 있다. 주로 중국과 일본의 풍속을 서술한 책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것은 정신적 눈요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또한 이들은 다양한 성적 표현이나 성적 관계 등을 통한 호기심을 유발하는 방

식으로 독자들의 눈을 현혹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 《매춘의 역사》(번 별로 외, 서석연 외, 까치)라는 책도 나왔지만, 《성의 일본사》(사사미 요시히코, 김인호, 자작)와 같은 경우에는 일본 매춘의 역사를 사례와 그림으로 제시해 설명한다. 오히려 '매춘의 일본사'라 하는 것이 책의 내용을 함축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성'이라는 포괄적인 단어를 잘 활용한 사례다. 무엇보다도 일본의 성문화에 대한 관심은 현재의 성산업에까지 이르고 있다. 《비상구 없는 일본의 에로스》(김지룡, 시사플러스)는 이런 경향의 정점에 있는 책이다.

이들 내용 중에는 남녀간의 성적 결합을 논의하다 보니 일부일처제와 처첩제 등과 같은 혼인제(婚姻制)의 다양한 방식까지도 거론하는 것이 특징이다. 《중국의 성문화》(유달림, 강영매 외, 범우사)나 《중국의 풍속》(김원중, 을유문화사)이 좋은 예며, 《생육신과 성무술》(송자오린, 홍희, 동문선)에 와서는 자식의 생산과 관련한 속신이나 신앙적 틀까지 논의대상으로 삼고 있다. 한국에서도 이와 관련한 성풍속을 쉽게 서술한 책들이 발간된 바 있는데, 《한국인의 성과 미신》(이규태, 기린원)과 《조선의 성풍속》(정성희, 가람기획)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외에도 서양의 사례를 논의한 것으로는 나체와 수치로 주제로 서양의 성풍속을 살펴본 《나체와 수치의 역사》(한스 페터 뒤르, 차경아, 까치)가 있으며, 섹스에 대한 오해와 편견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섹스와 편견》(번 별로 외, 김석희, 정신세계사)이 있다.

넷째, 한국의 성문화에 대한 관심은 주로 신앙과 문학으로 집중되는 특징이 있다. 성신앙과 풍속에 관련한 내용을 논의한 것으로 《성, 숭배와 금기의 문화》(이종철, 대원사)와 《한국의 민속과 성》(비교민속학회, 지식산업사)을 들 수 있다. 물론 일본이나 중국의 성신앙과 관련한 논의를 담고 있는 책이 있지만, 그것은 우리와 달리 성문화라는 포괄적인 대상 중에서 지엽적으로 논의된 것이다. 이외에도 《한국 육담의 세계관》(김선풍 외, 국학자료원)이나 《민중들이 바라본 성문학》(김종대 외, 민속원) 등은 구비문학을 통해 민중의 성을 어떻게 인식해 왔는지 논의한 글들로서 육담이나 성적 욕구의 표현들을 통해서 학

문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 한국적 성담론 개발 필요

성에 대한 담론들은 마치 폭포수와 같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동서양의 철학사에서 성신앙, 성풍속, 구비문학, 춘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분포돼 있는 성적 관심을 이론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성에 대한 모든 것을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니다. 서양에서는 철학 중심의 글이 번역되고 있으며, 동양쪽에서 성문화의 흔적들을 수집해서 출판한다.

그러나 이런 글들이 얼마나 성문화를 올바르게 전달하는가에 대해서는 긍정적이기보다 부정적인 요소가 강하다. 이 점은 책의 제목에서 잘 나타난다. '섹스'나 '성'이라는 단어가 무차별적으로 사용되고, 에로스라는 단어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다.

성에 대한 풍성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현재 가장 중요한 작업은 한국적 상황에 걸맞은 학문적인 논의가 추진돼야 한다는 점이다. 다만 흥미나 호기심을 충족하는 단계에 머문다면 우리나라에서 출판된 성 관련 서적은 모두 휴지 조각에 불과할 것이다. 성적 호기심을 채워줄 《플레이보이》와 같은 잡지를 만드는 것이 오히려 사회 구성원에게 보탬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성은 단지 쾌락보다도 더 많은 철학적 사유를 담고 있으며, 특히 종족번식이라는 자연적 섭리를 따르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미래로 나아갈수록 이런 인식은 부정될 것임에 틀림없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의 성문화를 검토하고 인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이런 단계에 도달하게 되면 우리는 인터넷상의 포르노사이트의 인기에서 보듯 성에 대한 호기심 대신에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게 될 것이다.●